

# 임실군, 5월 방문객 107만명 돌파 시민주권시대 여는 경제시장

### 한국관광공사 통계 분석 결과... 축제 경쟁력 기반 '사계절 관광' 안착

임실군의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관광특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방문객 통계 분석 결과, 지난 5월 한달간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은 총 107만6,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방문객의 해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만1,608명보다 5만4,968명 증가한 수치로 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5월의 성장세는 임실치즈페스티벌을 무대로 개최된 '임실N장미축제'의 성공이 견인했다. 봄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임실N장미축제는 유럽형 장미원에 수만 송이의 장미와 임실만의 대표 브랜드인 치즈를 결합해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



지난 5월 한달간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은 총 107만6,576명으로 집계됐다.

보가 더해지면서 가족단위와 연인, 젊은층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었고, 이는 5월 관광객 증가를 이끈 핵심 동력이 됐다.

장기적인 통계에서도 임실군의 관광 성장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18년 연간방문객은 498만5,87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18만1,132명으로 증가해 8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군은 육질호출단지과 불어섬 생태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더해,

△봄(임실N장미축제), △가을(임실N치즈축제), △겨울(산타축제)로 이어지는 사계절 대표 축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군은 특정 시기에만 방문객이 몰리던 과거의 한계를 넘어 계절마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관광도시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천만 관광객을 향한 가장 든든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장직 인수위, 민선 9기 시정 인수 위해 주요 업무보고 청취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용택)는 지난 9일, 민선 9기 시정 인수를 위해 행정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시민 주권시대 인수위원회라 명명한 인수위원회는 시정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새로운 시장 운영 준비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신속한 업무 파악을 통해 민선 9기 시장 운영 방향을 조기에 정립하고, 핵심 공약과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양종모 남원시장 당선인과 최용택 인수위원장을 비롯 한 양홍모 기획홍보과장, 양해석 행정교육과장, 양선모 문화관광과장, 김형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는 기획조정실부터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 재정 운영 현황, 국가예산 확보 전략, 공약 연계사



업, 미래 성장동력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 국가예산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인구정책,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민선9기 핵심 과제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을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렴된 주요 현안과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분야별 보고와 현장 방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청년 아이디어 발굴·커뮤니티 활동 지원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순창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창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환경, 관광, 청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으며,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포함된 4인 이상 팀으로,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옛 사람들의 고전소설' 특별전 개최

### 남원향토박물관, 9월 8일까지

남원시 남원향토박물관이 6월 10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옛 사람들의 고전소설-시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우리 소설의 발자취'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류의 모태가 된 언문체 고전 국문소설과 고전소설의 문학적 고갱인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선인들의 생활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전시에서는 1900년대에 발행된 이른바 '짜자본' 『춘향전』을 비롯해 『신관흥부전』, 『화씨충효록』, 『구운몽』 등 시대를 풍미한 고전소설과 70~80년대 현대 소설, 그리고 남원의 대표 문화 자산인 춘향제 관련 옛 사진 자료 등 총 40여 점의 소중한 유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남원향토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이 지역민에게는 고전소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



산을 새롭게 발견하는 뜻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한다.

군은 최근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등면 딸기모종 제거 작업을 비롯해 풍산면 고



추 유인돌 설치, 금과면 복숭아 봉지

씨우기, 구립면 블루베리 수확 작업 등을 실시하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영농철 작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군은 농번기 동안 각 실·과·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를 돕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농번기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올해는 총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



입해 28개 마을에 각각 32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공동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치 시상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9일 제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齒)로운 노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구강관리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정 구강검진 실시를 실시한 뒤 구강위생 상태가 우수한 학생 18명을 '건치아동'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또한,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평소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3명을 '건치실버'로 선정해 처음으로 함께 시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순창군은 구강보건의 날 주건을 맞아 시상식 외에도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뮤지컬 공연, 칫솔 바꾸기 캠페인,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전동시장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실천 문화 확산에 힘을 여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6월 5일부터 읍·면별 클린농촌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내 방치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주요 마을안길과 농경지 주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방치 폐기물 수거와 클린농촌 조성 캠페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업 참여자의 안전 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13일 안전교육 및 쓰레기 수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자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